

고흥군, 우주항공 10대 중점사업 선정 추진

우주랜드 조기구축·과학로켓센터 조성 등 2019년까지 대통령 공약 사항 포함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 구체화

군, 고급 인력·산업화·관광산업 창출 1석3조 효과 기대

고흥군이 나로호 발사 성공 1주년을 맞아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분야별 실행을 위한 '고흥 우주항공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나로우주센터와 연계

한 우주테마파크 조성', '항공우주부품 시험평가센터' 및 '국가비행시험센터' 건립이, 국경과제인 '고흥우주랜드', '우주센터 확장사업', '우주산업특화단지' 등이다. 또 '고흥과학로켓센터' 건립이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될 바 있다.

군은 3개 분야 14개 사업인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 대부분이 정부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분야별로 보다 구체화해 고흥 우주항공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흥우주항공 10대 중점사업은 우주과학문화·산업·항공·산업관광인프라 등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우주과학문화 분야에는 고흥 우주랜드 조기구축, 우주테마파크 조성, 나로우주센터 단계적 개방 등이, 우주산업 분야에는 고흥과학로

켓센터 조성, 우주센터 확장사업 적극 지원, 고흥 항공우주부품시험평가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항공분야에는 국가비행시험센터 조성, 우주항공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특화단지 활성화, 고흥우주기술특화단지 조성, 나로우주센터 진입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 등이 선정됐다.

특히 10대 중점사업 중 6개 사업은 조기 마무리하고 고흥 항공우주부품시험평가센터 조성, 우주테마파크 조성, 고흥우주기술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5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나로호 성공발사 1주년 기념으로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나로우주센터도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주산업은 고급인력 유입·산업화·관광산업 창출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차별화된 산업"이라며 "10대 중점 사업이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고흥군은 자립형 창조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j@



여수시립쌍봉도서관 이동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지역청소년들.

여수시립도서관 장서 60만권 보유 시민 지식정보 요람으로 거듭난다

여수시립도서관이 60만권이 넘는 서적을 보유해 시민 지식정보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2월 여수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4억 70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들여 3만 5000권의 새 책을 구입하게 되면 시립도서관이 보유한 책은 모두 60만 6000권에 이르게 된다.

특히 지난해 여수시립도서관 전체 대출 건수는 80만6634권으로 여수시민 1명당 평균 2.8권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립도서관은 현재 쌍봉도서관과 현암도서관, 돌산도서관, 소라도서관, 울촌도서관, 환경도서관 등 6곳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는 앞으로 도서관별로 쌍봉도서관을 외국어, 현암도서관은 지역학·문인 자료, 환경도서관은 생태·환경, 돌산도서관은 다문화·해

양, 소라도서관은 청소년, 울촌도서관은 의학·건강 자료 등을 확보해 각각 전문화를 꾀할 계획이다.

여수시립도서관은 시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체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 임산부와 유아 보호자,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도서 무료 배달 서비스는 물론 도서관 대출 예약 서비스, 자료 공동이용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여수시립도서관 관계자는 "특성화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와 전자책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시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과 관련한 문의와 안내는 여수시립도서관(061-659-4780)으로 연락하거나 도서관 누리집(yslib.yeos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수=김철환기자 chkim@

단신

정읍시, '괘찮은 일자리' 5230개 만들기로

정읍시는 올해 '괘찮은 일자리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장년 구직자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5230개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월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창출 목표 5050개를 초과한 5170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전년 대비 60개가

증가한 5230개로 설정했다. 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던 취업알선센터를 통합, 시청 종합민원실에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일자리종합센터는 구인·구직자 및 우량기업을 직접 발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교육 등을 맡게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교육청, '작고 아름다운 학교' 23곳 육성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작고 아름다운 학교' 23곳을 육성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생수 60명 이하의 공립 초·중학교 중 준비 프로그램이 우수한 학교다. 지역별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이 각 2곳이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1곳이다.

대중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의 지,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해 이달 중 에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특색 있는 교육과정,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등을 위해 최대 2000만원씩 지원한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순창군, 기초생활수급자 50가구 주거환경 개선

순창군이 올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가구당 사업비를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하며, 순창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전문 시공업체가 사업을 맡아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군이나 다른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제외되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7월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도, 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생 650명 선발

전북도와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올해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생의 정원이 650명으로 확정됐다. 인재육성재단은 2월 "오는 3월 10~21일 '2014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받아 1~2차 심사를 거쳐 650명을 선발하

겠다"고 밝혔다. 초등생 440명, 중학생 190명, 대학생 20명이다. 초·중학생은 여름과 겨울 학기로 나눠 8주간 진행되며 대학생은 오는 7월부터 24~48주 이내로 '셀프랭'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순천 봉화산 둘레길 조성 특혜 의혹 市 “난개발 방지 사유지 매입” 해명

“과도한 땅 매입설” 부인

순천시시는 2일 논란이 일고 있는 봉화산 둘레길 조성 특혜 의혹과 관련 "둘레길 사유지 매입은 봉화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 특혜 의혹은 과도한 땅 매입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시장 명의 토지 등의 매입이 핵심 내용이다.

시가 봉화산 둘레길 조성에서 필요한 면적 1만9263㎡(사유지 1만2921㎡)보다 130배에 달하는 171만4048㎡를 매입할 계획이며, 이 매입 대상 사유지에 조충훈 시장 명의의 땅(826㎡)과 조 시장 부인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한 학교재단 임야(3219㎡)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오는 2020년 봉화산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해제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난개발을 고려해 주변까지 앞당겨 매입한 것으로, '과다 매입설'을 부인했다.

또 "조 시장 명의 등의 토지는 지난 2012년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공사가 진행중으로 지금까지 보상으로 적도 없으며 당장 매입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 의원 등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한편 연장 12.5km의 봉화산 둘레길은 104억원을 들여 순천만, 순천만 정원, 동천을 따라 도심을 잇는 생태축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설 연휴에도 씻물 뽑아내는 광양제철

4일간의 설 연휴에도 고흥을 찾지 못하고 쉴새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쇳물이 나오는 고로 출선구에서 방열복을 걸쳐 입은 직원들이 작업에 여념이 없다. 광양제철소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쇳물을 뽑아내야 하는 철강업 특성상 나흘간의 명절연휴에도 조업라인을 모두 가동했다.

4일간의 설 연휴에도 고흥을 찾지 못하고 쉴새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쇳물이 나오는 고로 출선구에서 방열복을 걸쳐 입은 직원들이 작업에 여념이 없다. 광양제철소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쇳물을 뽑아내야 하는 철강업 특성상 나흘간의 명절연휴에도 조업라인을 모두 가동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전북

“순창 메주로 직접 된장 담가 보세요” 郡, 두차례 장독대 분양 행사

이달 22일·내달 1일

순창에서 15년 이상 장을 담양온 기능인과 도시민이 함께 장류체험도 하고 된장도 담을 수 있는 장독대 분양행사가 순창에서 열린다.

순창군은 2월 "오는 22일과 3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장독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기능인과 함께 장을 담고, 향아리에 숙성시켜 각 가정에 배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장독대 분양사업은 수십년의 경력에 있는

순창기능인들이 순창의 원료를 가지고 장을 도시민과 같이 담양 가능한 이 직접 관리해 주변서 함께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큰 매력으로 꼽힌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오는 21일까지 순창군 장류사업소(063-650-5421)로 신청하면 되며, 장을 담을 수 있는 공간과 참여하는 기능인이 제한돼 있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체험이 이뤄지는 일정 중 본인만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택하면 되고, 1구와 기준 품 10kg를 신청

하면 된다.

이번 장독대 분양에 참여하는 기능인 박현순(여·57)씨는 "이번 행사는 시중판매가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므로 도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도시민들에게 순창의 장맛을 보여주고,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분양 안내는 순창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신기마을 당산제

천연기념물 제281호인 '신기마을 느티나무 당산제'가 2일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신기마을에서 열렸다. 수령이 600여년 정도로 추정되는 진기리 느티나무는 높이 23m, 둘레 8.25m, 뿌리 근처의 둘레는 13.5m에 이른다. /연평뉴스

고창 ‘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

동림저수지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발전 모색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생태환경보전협의회'를 창립했다.

군은 2일 "지난달 28일 군청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생태환경보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주민 중심의 지역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 이상복 회장은 "세계에서 인정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동림저수지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지역이지만 현재 AI 발생으로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창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앞으로 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등의 관광 명소와 생물권보전지역을 한데 묶어 세계적인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원광대 '통합암병원' 설립한다

국내 첫 양·한방 병행 치료...광주에 '통합의학연구소' 열

원광대는 2일 "양·한방을 통합한 암병원과 의학연구소 설립 등을 포함한 병원 미래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는 현재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3개 대학병원과 전국에 10개의 계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암 치료에 한방의학의 결합을 위해 의과대학병원, 의산한방병원, 산본의대병원, 산본한방병원을 통합하고 '통합암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통합

암병원은 암 치료·연구뿐 아니라 뇌졸중과 근골격계 질환에도 양방과 한방을 병행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광대는 또 광주한방병원 내에 '원광통합의학연구소'를 설립, 임상실험과 통합의학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주한방병원은 질환별 센터 체제로 개편하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통합